

이제는 중앙亞 카자흐스탄으로 가볼까

- 3월 20부터 한-카자흐스탄 항공회담* 여객·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-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*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.

* <수석대표> 한국 김영국 항공정책관, 카자흐스탄 톰피예바(Saltanat Tompiyeva) 민간항공위원장

□ 그간 주 1,450석(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)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횡수제로 변경하고, 인천-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, 인천-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(총 주 21회)한다.

○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.

□ 또한,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‘좌석수제*’에서 ‘운항 횡수제**’로 변경한다.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*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

**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횡수 설정 방식

○ 이와 함께,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,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.

<한-카자흐스탄 간 운수권 증대 현황>

인천, 그 외 1개 지점	알마티, 아스타나	○ 인천-알마티 노선 주 7회 (좌석 제한 없음)
주 1,450석		○ 인천-알마티 노선 외 주 20회 예) 인천-아스타나, 부산-알마티

-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“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·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,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	(044-201-4207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희	(044-201-4208)
		담당자	주무관	김대영	(044-201-421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참고**한-카자흐스탄 항공협정 현황**

- 지정항공사 : 복수제(2개, one or two airlines)
 우리측 아시아나항공, 티웨이항공
 카자흐측 에어아스타나

- 운임 : 신고제

- 노선구조

구 분	출발지점	중간지점	목적지점	이원지점
한국측	한국 내 제지점	제지점	알마티, 아스타나	제지점
카자흐측	카자흐 내 제지점	제지점	서울, 다른 1개 지점	제지점

- 공급력

- (3/4자유) 여객 주 1,450석

- 운항현황('23년 기준)

<우리측> 여객 주 3회~5회	<카자흐측> 여객 주 5회~6회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시아나 - 인천-알마티 주 3회 - 성수기(6월~9월) 주 5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에어아스타나 - 알마티-인천 주 5회 - 성수기(6월~9월) 주 6회